

물가 3% 선 사수에 1조 투입... 먹거리·생계비 부담 낮춘다

민생경제 경고등

고환율에 원자재·물류비 부담 ↑
식품·외식업체 가격 인상 확산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대폭 확대
계란 2억개·고등어 2000t 공급
공공요금 동결·LPG 부과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도 검토

국내 기업의 원자재·원재료 조달 비용이 가파르게 불어났다. 중동 사태의 영향에 더해 원화 가치의 추락에 따른 현상이다. 이에 정부가 업계의 위기 타개를 지원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급기야 1550원 위까지 넘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어떠한 수준의 실효성을 지닐지 관심을 모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비책 마련을 부처 실무자들에게 주문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도출될 예정인데, 해외에서 부품·재료 등을 들여와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부문의 지원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및 보증 등에서 지원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민생물가 잡기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최근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값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액화천연가스) 부담 완화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비우체(이용권) 수급 가구에 대해, 기존 대비 14만 7000원을 2026년



이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류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시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될 분야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총력 대응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와 고환율의 고착화 흐름 속에 3% 언저리, 나아가 2%대 중후반의 물가 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와 프랜차이즈의 식메뉴 값이 줄줄이 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육계(1kg)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6632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9%나 올랐다. 특란(30구) 가격도 7470원으로 6.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달 삼겹살(100g)과 한우 가격은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15.3% 올랐다. 대파 소매가격은 kg당 2827원으로 작년 6월(2388원) 대비 18.4%, 수박도 한 통에 2만 4292원으로 8.9% 올랐다. 수산물도 수입산 염장고등어(1손) 소매가격이 1만 803원으로 무려 26.5%나 뛰었다.

탄산음료 등의 국내 가공식품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 말부터 칠성사이다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린다. 회사 측은 음료 산업은 포장재가 전체 원재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부담이 겹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음료수캔·맥주캔 등의 주 원료인 알루미늄을 비롯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급등한 데 따른 인상 행렬이다. 나프타의 경우 국제거래가격이 불과 1년 사이 60% 내외로 치솟았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불러온 결과다.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지난달 버거 22종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가격을 4900원에서 5200원으로, 써브웨이도 지난달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커피업계의 인상도 잇따랐다. 메가MG C커피는 할매커피, 왕할매커피, 할매가미커피 등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올렸고, 이디야커피는 아메리카노 스틱커피(100개입) 4종 가격을 약 15% 인상했다. 동대문엽기떡볶이 역시 내년 7월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7% 인прав으로 올릴 예정이다.

7월 초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에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당시 3% 중반을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해 6월 6%대를 찍었다.

통상 원유 값이 뛰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잇따라 오른다. 석 달쯤 후엔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라 인플레이우려도 커진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환율 끌어내리기에 금리 인상이 즉효를 낸다. 물가 잡기에도 그만이다. 반면 소비가 오랜만에 회복하는 국면에서 다시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중동발 충격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질 경우, 하반기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美 금리 인상 관측에 강달러 우려

>> 1면 '하반기 물가와 전쟁...' 서 계속

여기에, 퍼지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론은 환율의 추가 상승 우려를 낳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5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3년 1개월 사이 최고인 4.1%에 달했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갖춰진 셈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강달러 국면이 뒤를 잇는다. 국내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고, 이 경우 원화는 더 치명적인 약세로 빠져드는 처지에 놓인다.

올해 하반기, 국내에선 이른바 '물가와 전쟁'이 전개될 공산도 충분하다. 정부가 최근 내비친 언저리에서 그 심각성이 읽

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비롯해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지원 등이 주요 지원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운용할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관리에 중점을 크게 둘 전망이다. 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크고 작은 인생의 순간들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나와살아가는 보험을 만나다

한화손보 전속모델 고윤정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p>▶ 난임 진단비 보장</p> <p>난임진단비(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 (보장 종료일은 보험나이 48세까지, 보험 가입 1년간 보장 제외, 최초 1회만)</p>	<p>▶ 몸 건강을 넘어 마음 건강까지 케어</p> <p>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질환) A*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 후 1년 이내 50% 지급, 최초 1회만, 세부보장별 지급조건 상이)</p>
----------------------------------------------------------------------------------------------------------	------------------------------------------------------------------------------------------------------------------------------------------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A: 과다수면장애 [과다수면], 수면무호흡, 발작수면 및 허탈법적, 비기질성 과다수면, 비전형적 신경성 식욕부진,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우울 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력심의회 제165928호(2025.12.08~2026.12.07)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